

# 변창흠 “구의역 김군 가족·국민 마음 헤아리지 못했다” 사죄

###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막말 거듭 사과 특혜성 채용·연구용역 몰아주기 부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구의역 사고 등에 대한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진외와 다르다”며 사과했다. 또 앞으로 국토부 장관이 되면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보았다”라며 “그 성찰의 시간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아픔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을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함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사과했다.

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토부에는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 택배 등 위

험에 노출된 노동자분들이 너무 많다”라며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이런 ‘위험 노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에 나서 재원부족 때문에 인권이 경시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운석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건설현장과 시설물의 안전성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부각되고 있다”며 “저도 중대재해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법안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같은 당 김희재 의원이 다시 사과를 요구하자 “4년 전에 건설현장과 다른 노동현장의 구조를 잘 모른 채 발언해 피해자와 유족, 그와 비슷한 위험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 드려 죄송하다”라며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과거 저의 발언을 반문교사로 삼아 다시는 억울한 생명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SH 사장으로 재직할 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거나 지인들을 특혜성 채용을 해주고 연구용역을 몰아줬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선 완강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변 후보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히 부인했다. 변 후보자는 “교수로 있다가 조직을 새로 맡으면서 고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개혁에 한 역할을 하려고 저도 개혁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 불편한 분들이 있었고 반발도 나온 것 같

다”고 말했다. 또 변 후보자는 질 좋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질 좋은 평생주택은 결국 예산의 문제라

며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한다면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임대주택이나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해철·권덕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쌓은 경험이 행안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자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내년 재보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 2006년 구입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점 등은 공직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며 적극 판단을 내렸고,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응하면서 부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복지위는 보고서에서 권 후보자의 보건복지 전문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우상호 출마 이어 박영선·박주민도 출마 준비

### 민주 서울시장 경선전 꿈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도 물밑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우상호 의원의 출마선언 이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박주민 의원은 고심을 이어 가면서도 외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민주당 이광재 황희 강병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프로토콜 경제’ 관련 화상 간담회에 영상 축하자로 등장했다.

축사에서 “수정된 플랫폼 경제가 프로토콜 경제”라며 “각 경제주체가 합의된 규칙(프로토콜)을 정해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이 프로토콜 경제”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장관으로서 평소 주장해 온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 차원이기는 하지만,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이광재 황희 의원이 주도하는 행사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박주민 TV에서 구독자들이 참여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한해 의정활동을 되짚어 보고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다. 박 의원은 “매년 해는 행사로 특별히 의미 부여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을 지내고 8·2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도 도전했던 박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한층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최근 이해찬 전 대표가 주재한 전인 지도부와의 식사 자리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총선 후보자 측근에 음식물 받은 주민 12명에 1100만원 과태료 전남도선관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21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12명에게 총 1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주민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전남지역 모 선거구 후보자 측근 A씨가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 4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261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따라 12명의 유권자에 대해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94만 500원씩 총 1128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윤영덕, 학교법인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교육부의 회계 투명성 강화로 사전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은 23일 “학교법인의 재정 운영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교육기관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진 법인이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이다”며 “사립학교만을 운영하는 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법인은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 및 공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는 짧은 기간만으로는 학교 구성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재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윤 의원은 “매년 수조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부 감사를 통한 사후 점검 방식의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서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에 예산 및 결산의 공시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승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강중진) 국회의원은 23일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내 종자산업은 대표적인 국내 종자 업체들이 다국적기업에 매각되는 IMF를 겪으며 발전 기반을 상실했고, 현재 48조 원에 달하는 세계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 종자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종자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한국종자협회’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이 없어, ‘한국종자협회’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인력이나 예산 지원 규모가 미약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한국종자협회’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를 명시하여, 정부가 그 법에 근거해서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종자협회’를 지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기준 파프리카 종자는 1g당 10만원, 토마토 종자는 1g당 12만원으로 순금의 3배 가격으로 거래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비하다”면서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서 종자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 콘도명           | 사용 체인   | 면적       | 최종 분양가     | 매각 금액  | 콘도명  | 사용 체인                           | 면적       | 최종 분양가   | 매각 금액 |       |
|---------------|---|----------|------------|--------|--|---------------------------------|----------|----------|-------|-------|
| 대명리조트         |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 패밀리형 방1개 | 2,530      | 1,780  | 리솜리조트  |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 실버(24)방1 | 2,850    | 1,680 |       |
|               |   | 스위트형 방2개 | 3,600      | 2,680  |  |                                 | 골드(28)방2 | 3,210    | 1,980 |       |
|               | 로얄(34)방3  | 4,890    | 3,480      | 켄싱턴리조트 |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 패밀리B(21)방1                      | 1,980    | 980      |       |       |
| 디럭스형 기명(방2개)  | 2,480   | 1,680    | 스위트A(26)방2 |        |  | 2,120                           | 1,280    |          |       |       |
| 디럭스형 무기명(방2개) | 3,110   | 1,880    | 스위트B(31)방2 |        |  | 2,600                           | 1,380    |          |       |       |
|               |   |          |            |        |  |                                 |          | 로얄(35)방3 | 3,200 | 2,200 |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